

대통령 인수위 관련 환경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지난달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는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주요업무 및 현안보고를 청취했다.

문여준 환경부 장관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대기, 수질, 폐기물 보전대책 등을 보고했고 특별보고사항으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환경보전시책을 보고했다. 또한 주요 현안과제로서 4대강 상수원 수질개선 대책과 시화호 및 새만금호 수질개선 대책등이 보고되었다.

<편집부>

1. 아천,호소의 수질개선과 맑은물의 쟁 **<추진계획>** 분안 공급

<현황>

- 그동안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오염원관리 강화 등에 따라 주요 지천의 수질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으나, 4대강 상수원지역의 수질은 아직까지 개선이 미흡

- * 4대강 주요 상수원 지역중 팔당(한강), 대청(금강), 주암(영산강)지역은 일반 정수처리후 먹는물 사용이 가능한 2급 수질, 물금(낙동강)지역은 고도정수 처리가 필요한 3급 수질

- 상수도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 왔으나

- 지역별로 상수도 보급률의 편차가 심해 농어촌지역은 아직까지 상당히 열악한 수준

- * '96년말 현재 전국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83.6%이며, 대도시지역이 98.1%, 중소도시가 87.1%인 반면 농어촌지역은 19.8%에 불과

가. 상수원의 수질개선

- 상수원지역내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처리시설을 대폭 확충

- 낙동강 물금 등 상수원 수질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점 수질개선지역으로 지정, 지역내 오염원을 총량으로 관리

- 하수처리시설 등 오염물질처리시설을 상수원 지역에 우선 설치

- * 수도권의 주요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98년중 하수처리율을 78%로 제고 ('96년 34%, '97년 71%)

- 상수원 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대강별로 환경감시대를 설치하여 집중 단속

-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한강101명, 낙동강 112명, 금강 58명, 영산강 64명)

리포트

- 상수원의 조속한 수질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추진

나. 하천과 호소의 체계적 관리

- 전국 805개 하천유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유역별로 수질개선대책을 수립

- 각 배수구역별 목표수질의 재설정 및 오염물질 삭감계획 등

- 산업폐수, 생활오수 등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

-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을 용수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 적용

- 생활오수를 발생원에서 처리하는 합병정화조의 설치를 촉진

- 농경지 등 비점오염원으로부터 오염물질의 하천유입을 저감하기 위해 장마철 대청소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 '96년 8월 관계부처 협동으로 수립한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수질환경기초시설을 지속 확충

- '96-2005년 기간중 26조 9,360억원을 투자, 하수처리시설 601개소 등 5,904개 시설(농어촌 오수시설 5,000개소 포함)을 확충·정비

- '98년에는 1조 5,068억원을 투자, 316개 시설 설치

- 주요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호소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 호소수질보전지역을 지정하여 숙박·음식점 등 오염원을 특별관리하고, 호소수질 장기종합계획('98-2007)을 수립

- 시화호 등 간척조성 호소별로 수질예측조사를 실시하여, 호소별 특성에 따른 수질관리대책을 추진

- 다. 먹는물 수질관리 강화 및 상수도시설 확충

○ 먹는물 수질관리 강화

- 먹는물 수질기준을 강화('97, 45개 수질기준 항목 → 2002, 85개 항목)하고, 상수도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실시

- 수돗물의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상수도관(2,838km) 및 취·정수시설(91건)을 개량하고, 원수수질이 나쁜 정수장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98년중 7개소 설치 완료)

- 먹는샘물 개발절차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정수기의 품질관리방안을 추진

-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하수개발 총량제를 도입

○ 상수도시설 확충 및 절약시책 추진

- 중소도시·농어촌·도서지역에 국고지원을 통해 상수도시설을 중점설치

(단위 : 억원)

구 분	중소도시 ('96-2005)	농어촌 ('94-2004)	도서지역 ('97-2001)
사업비	9,165	8,000	1,519
대상지역	81	215	65

주) '98년중에는 총 1,819억원을 투자, '97개 지역(중소도시 28, 농어촌 47, 도서지역 22)에 시설 설치

- 절수형 수도기기와 중수도의 보급을 확대하고,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물절약 실천 유도

2.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촉진 및 안전처리

<현황>

- '9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로 인하여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이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 산업규모의 확대와 함께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

* '96년에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49,925톤/일, 사업장

환경부

폐기물 발생량은 130,648톤/일로, '94년에 비해 각각 14.1% 감소 및 46.9% 증가

- 이렇게 발생된 폐기물중 사업장 폐기물을 상대적으로 재활용 비율이 높으나, 생활쓰레기는 좁은 국토현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매립 처리
 - * 매각, 소각, 재활용비율('96%) : 사업장 폐기물(28.5, 5.2, 66.3), 생활쓰레기(68.3, 5.5, 26.2)

<추진계획>

가. 폐기물의 감량촉진

- 생활쓰레기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저감대책을 지속 추진
 - 음식점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 사업장의 확대·관리,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 시설 확충 ('98년중 20개소), 음식물쓰레기 배출원과 수요처의 연계·알선 등
- 가정 및 소규모 사업장외에 모든 일반폐기물 배출원에 종량제를 적용하고, 종량제 비닐봉투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강구
- '97년부터 시행된 사업장폐기물 자율감량제도를 조기 정착하고, 합성수지 재질포장재 감량제도를 '9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36만 개소)의 의무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

나. 폐기물 재활용의 활성화

- 재활용 산업을 육성 지원
 - 전국 4개 권역별로 재활용 종합단지를 조성하여 재활용 업체 유치
 - 재활용 산업체에 대한 재정·세제지원을 확대
 - 재정지원 : 450억 → 500억 원

· 세제지원 : 관세감면대상 재활용 시설 확대,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대상 재활용 품목 확대

- 재활용 제품 판매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재활용 제품 우선구매제를 확대(대상기관 : 114 → 180개 기관, 대상품목 : 13 → 80개 품목)하고, 대기업 등 민간기업에도 우선 구매 적극 권장

○ 재활용 폐기물의 적체해소 대책을 추진

- 조달청 비축자금 확대(225억 → 300억 원), 비축기지 조성(3개소) 등을 통해 재활용품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
- 적체가 심한 폐플라스틱 및 폐유리병에 대량 소비방안을 강구

○ 폐가전제품 등을 대상으로 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책임 강화

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및 운영 효율화

- 매립·소각시설 등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 '98년에는 생활쓰레기처리시설 61개소(매립 24, 소각 32, 종합 5)와 지정폐기물(유해폐기물)처리시설 4개소의 설치를 추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내실화하여 시설의 원활한 입지·운영 도모

○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신뢰 제고

- 폐기물 소각시설별로 다이옥신 규제기준을 조기 달성하고, 새로운 소각방식(플라즈마 응용소각시설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
- 사용중인 매립시설과 사용종료 매립시설을 점검하여 시설개선 및 정비

- '98년중 사용중인 500여개 매립시설을 일제 점검한 후 시설을 개선하고, 5개소의 사용종료 비위생 매립지를 정비

라.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 국토사랑운동의 일환으로 공익근무요원 주축의 “국토보전단”을 발족하여 쓰레기투기 집중 단속(‘98년 공익요원 1,873명 투입)
-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관리기관에 쓰레기 투기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강구
- 명절·행락철 등에 환경부, 시·도, 경찰청 합동으로 “쓰레기 특별관리 대상지역”을 선정·중점 단속
 - *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와 연계 쓰레기 안버리기 운동 집중 전개

3. 4대강 상수원 수질개선대책

가. 추진배경

- '93년부터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93-‘97)”에 의한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4대강 상수원의 수질은 개선이 미흡

〈4대강 주요 상수원 지역의 수질변화 추세(BOD)〉
(단위 : mg/리터)

구 분	'93	'94	'95	'96	'97(1-11월)
한강(팔당)	1.2	1.2	1.3	1.4	1.5
낙동강(물금)	3.4	4.6	5.1	4.8	4.4
금강(대청)	1.6	1.5	1.2	1.5	1.2
영산강(주암)	1.8	2.0	1.6	1.2	1.2

-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대구시의 위천공당 조성 계획과 관련, 낙동강 중·하류 지역간 물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지속

나. 상수원 수질개선 지연사유 및 상수원지역 관리상의 문제점

○ 상수원지역내 오염원의 지속적 증가

- 개발가능지역의 확대 등으로 인구, 산업·축산시설 등의 수질오염원과 오염물질 발생량이 대폭 증가
- '90년대비 '96년말 현재 수질오염원은 53%, 수질오염물질 발생량은 31% 증가
- 특히 팔당·대청 등 주요 상수원지역의 오염원 증가현상이 현저한 실정
- 팔당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경우 '90년에 비해 '97년에는 숙박·음식점이 275%, 산업시설이 196%, 인구가 25% 증가

○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의 부진

-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의 계획대비 투자율은 '96년말 기준 92.4%이나, 시설완공률은 사업비 증가, 담비현상 및 장기간의 공기소요로 계획 대비 39%(180개소 완공)에 불과

○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체계 미비

- 현행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규제 방식 하에서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오염물질의 총량적 증가를 억제하는데 한계
- 이와 함께 규제규모 미만인 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수단도 미비

○ 상수원 보호지역 관리상의 문제점 상존

- 상수원 보호를 위한 지역을 환경정책기본법(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도법(상수원 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자연보전권역) 등에서 분산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 곤란
- 상수원 보호지역내 행위규제에 따른 주민불만이 가중
 - * 현재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만 주민 지원사업이 실시 중



다. 상수원 수질개선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

- 4대강 상수원지역의 수질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투자를 지속 확대
 - 수질개선클로치법 제정 추진, 유역별 오염물질 총량관리체계 구축,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 이와 함께 4대강중 상수원 수질이 가장 나쁜 낙동강의 조기수질개선 대책을 별도 수립('96. 12.30)하여 추진

〈4대강 상수원 수질개선대책〉

- 상수원의 조속한 수질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추진
 - 상수원 보호지역의 통합관리, 지자체별 오염부하량 총량관리, 지자체별 수질개선클로치체계 설치, 환경기초시설 설치절차 간소화, 오염원 입지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기능 강화, 상수원 지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등의 내용을 반영
 - 상수원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 '97.6.5 국회에 제출(현재 환경노동위원회 계류중)
- 4대강 유역별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추진
 - 4대강 유역을 805개 소류역으로 세분, 정밀조사를 실시(오염물질발생량, 수질.수문현황 등) 하여 지천별 수질개선대책을 마련
 - 한강·낙동강은 '98.5월까지, 금강·영산강은 '98.12월까지 정밀조사를 완료
- 상수원 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 4대강별로 관계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상설 환경감시대를 설치, 수질오염행위를 집중 단속
 - 한강에는 '97.10월에 설치.운영중이며, 기타 유역에는 '98.2월중 설치 예정(한강 101명, 낙동

강 112명, 금강 58명, 영산강 64명)

- 상수원 지역내 오염원의 입지를 규제하고 오염물질처리를 강화
 - 준농림지역내 300호 이상의 공동주택과 부지면적 3만평방미터 이상 또는 용적률 100% 이상인 일반 건축물의 입지를 금지('97.9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
 - 상수원이용 호소에서의 낚시 및 가두리양식장 운영행위를 제한('97.8월 호소수질관리법 제정)
 - 오수정화시설 설치규모 미만인 건물.시설물에 합병정화조(생활오수와 잡배수의 합병처리)의 설치를 의무화('97.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02년까지 단계적 시행)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상수원 상류지역의 기존 숙박.음식점에는 시설 설치자금을 국조보조지원('98년 총 100억원 지원)
-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상수원 지역에 우선 설치
 - 상수원 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자금의 국고지원을 여타 지역보다 확대
 - * 수도권의 주요 상수원인 팔당호의 하수처리율을 현재 71%에서 2001년에는 81%로 제고('98년중에는 78%)
- 농경지 등 비점오염원으로부터 오염물질의 하천유입을 차단하기 위한대책을 추진
 - 장마전 대청소, 침전지 설치 등의 방안을 강구
 - * 비점오염원의 총오염원대비 수질오염 기여효과 : BOD 16.1%, 총 질소 26.2%
- 당초 2005년까지 낙동강 물금지점의 수질을 2급 수(BOD 3mg/리터 이하)로 개선키로 하였던

〈낙동강의 조기수질개선대책〉

리포트

물관리종합대책(‘96.8)상의 계획을 2001년에 앞당겨 달성

- 이를 위해 2000년까지 1조 3,260억원을 투자 키로 한 당초 계획에 1조 6,373억원을 조기 투자(총 2조 9,633억원 투자, 국고 53%)
- 하수처리시설 47개소, 축산폐수처리시설 18개소, 폐수종말처리시설 8개소 설치 및 하수관거 5,920km 정비
- * 위천공단 조성관련 환경부의 입장

- 진행경위

- ‘91.12 : 경북도에서 염색.섬유업체 중심의 지방공단 지정 신청(경북도 → 건교부 : 105만 평, 오.폐수발생량 16만톤/일)
- ‘95.6 : 위천지역이 대구시에 편입후 지방공단 철회 및 국가공단지정 요청(대구시 → 건교부)
- ‘96.2 : 대구시에서 공단계획을 확대.변경하여 재요청(대구시 → 건교부 : 정밀전자.운수장비 업체 중심의 첨단산업단지 304만평, 오.폐수 발생량 8만톤/일)
- ‘96.5 : 위천공단 조성관련 수질관리대책에 대한 기술적 검토 요청(건설교통부 → 환경부)
- ‘96.6 : 수질영향분석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의견 통보(환경부 → 건교부)
- * 수질영향분석전문가는 총10명(대구 2명, 부산 2명, 경남.북각 1명, 환경부 수질분과위원 4명)

- 검토의견 내용

- 위천공단조성에 따라 낙동강에 미치는 수질오염부하량이 현재보다 감소된다는 보장조치가 선행된 후 공단조성을 추진
- * 공단배출 오.폐수의 완벽한 처리(3차 고도처리 등), 대구시에 산재한 각종 공해공장의 공단내 집단화,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완충시설 설치, 이해관계지역(대구, 부산, 경남.북)의 대표들로 공동위원회를 구성, 갈등해소 등

- 추진방향

- 공단조성여부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결정하되, 환경부 등 관계 부처 및 낙동강 중.하류지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교통부에서 공단지정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수질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견회신

〈국가공단2조성의 법적체계〉

공단지정요청(중앙행정기관) → 개발계획수립(건교부) → 공단지정(건교부)→ 관계기관협의 → 사업시행(사업시행자)→ 환경영향평가

- 낙동강 조기 수질개선대책은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위천공단 조성여부와 상관없이 지속 추진

4. 시화호 수질개선대책

가. 추진배경

- 국토화장의 일환으로 추진한 시화간척사업의 방조제 공사가 완료(‘94.1)된 이후, 조성호수인 시화호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

〈시화호의 수질변2화 추세(COD)〉

(단위 : mg/리터)

‘92	‘93	‘94	‘95	‘96	‘97(1-11월)
3.4	3.2	5.9	9.4	14.2	17.7

- * 시화호 유역에는 큰 하천이 없어 유입수량이 상당히 적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해수유통이 차단되어 시화호의 오염이 심화

나. 시화호 수질개선대책 추진현황 및 대책

- 시화호 수질개선대책을 수립(‘96.7).추진하여 시화호 물을 정화
- ‘96-2001년 동안 총 4,493억원을 투자, 시화호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전량 처리



- 외해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시화호 물의 오염진 행을 막을 수 있는 적정해수유통방안을 마련
 - 이와 병행하여 시화호 및 간석지의 향후 이용 계획을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확정
- 〈시화호 수질개선대책〉**
- 안산·시화·화성 하수처리장의 신증설 및 하수관거정비, 시화호 유입하천 정비를 통하여 발생 오·폐수를 전량 처리
 - '97년까지 안산하수처리장 증설(58천톤/일), 산화지 4개소 설치(71천평), 하수관거 919km에 대한 오점조사 완료(발견된 오점관로 70% 보수)
 - 2001년까지 안산, 시화, 화성 등 하수처리장 3개소 신증설(안산: 534천톤/일, 시화: 250천톤/일, 화성 5천톤/일), 하수관거 1,519km의 전면 개보수 및 반월동화, 삼화천 유역에 자연정화시설인 인공습지 설치(245천평) 등을 추진

〈시화호의 주요 수질개선 사업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계획년도	투자비
〈하수처리장 확충〉		
안산하수처리장(413천톤 증설)	2001	2,000
시화하수처리장(74천톤 증설)	1998	600
화성하수처리장(5천톤 증설)	2000	420
〈하수관거 신설·정비〉		
하수관거 신설(안산 21km)	2000	124
하수관거 정비(1,519km)	1999	76
차집관로 설치(반월 11km)	1996	50
〈자연정화시설 설치〉		
환배수로(18km)	1998	200
인공습지(245천평)	1998	220
산화지(4개소, 71천평)	1997	10
하천정비(40km)	1999	53

주) 이외에도 해수유통방안 마련, 수중폭기시설 설치, 약품처리, 오염물질준설 등 시화호내 수질정화사업에 740억원 투자

- 적정 해수유통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배수갑문 시험개방 및 외해영향조사 실시
 - '97.3.11일부터 배수갑문 시험개방 및 외해영향조사를 실시중(한국해양연구소 주관)
 - '98.6월까지 시험개방 및 외해영향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정해수유통방안을 마련

〈시화호 및 간석지의 향후 이용계획 수립〉

- 시화호 및 간석지의 향후 이용계획을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영향
 -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거쳐 시화호·간석지의 향후 이용계획에 관한 추진방향 협의('97.12.17)
 - 시화호의 향후 이용계획은 현재 진행중인 국토개발연구원의 "시화지구 2단계 개발 기본구상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결정(항만으로 개발하는 문제는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협의·검토)
 - 간석지는 당초 계획대로 농지, 도시, 공단 등으로 개발하되, 구체적 내용은 "시화지구 2단계 개발 기본구상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
 - 향후 "시화지구 2단계 개발 기본구상수립 연구용역"을 '98년 상반기중에 완료하여, 시화호 및 간석지 이용계획을 확정(건설교통부주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

5. 새만금호 수질개선대책

가. 새만금지구 간척사업 개요

- '91년부터 농지조성과 용수개발을 목적으로 전북 새만금지구에 간척사업을 추진

- '97말 현재 전체 공정의 25.2%가 완료되었으며 방조제 물막이 공사는 47%가 완료

〈사업개요〉

- 위치 :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3시 1군 19개 읍면동)
- 개발면적 : 40,100ha(토지조성 28,300ha, 담수 호 11,800ha)
- 사업기간 : '91-2004(1조 9,350억원 투자)

나. 문제점

○ 유역내 환경기초시설의 부족으로 오.폐수 처리 미흡

- 하루 575천톤의 오.폐수가 발생하여 이중 59%에 해당하는 343천톤만이 하수처리장 등 환경 기초시설에서 처리 ('97년말 현재)

○ 유입지천인 만경강, 동진강의 수질악화

- 특히 만경강의 주요 유입지천인 익산천의 수질은 '97년 평균 32.9mg/리터

〈만경강 및 동진강의 수질변화(BOD) 추세〉

구 분	'93	'94	'95	'96	'97(1-11월)
만경강(김제)	7.2	6.5	9.2	10.7	6.3
동진강(정읍)	1.6	3.0	7.5	3.3	2.7

〈새만금호와 시화호의 비교〉

- 시화호

- 담수면적 : 56평방킬로미터
- 저수용량 : 3억 2천만톤
- 연간 유입량 : 3억 8천만톤
- 체류일수 : 200일-1년
- 유입하천 : 안산천 등 6개 지천

- 새만금호

- 담수면적 : 118평방킬로미터

- 저수용량 : 5억 3천만톤
- 연간 유입량 : 14억 4천만톤
- 체류일수 : 90일
- 유입하천 : 만경강, 동진강

* 새만금호는 시화호에 비해 유입수량이 많고(38배) 체류일수가 짧아(1/2-1/3배), 상대적으로 오염 우려가 적으나 하구연의 특성상 수질악화가 불가피

다. 향후 대책

○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및 하수관거 정비

- '98년중 총 1,460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2개소(78천톤/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3개소(610톤/일), 하수관거 102.7km를 신설.보수
- 2005년까지 추가적으로 5,548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25개소(330천톤/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1개소(140톤/일), 하수관거 395.5km의 신설.보수
- 주요 오염지천인 익산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총 9억원을 투자, 하상정비(2.4km), 오염물질 준설(27천톤) 및 왕궁축산단지 폐수처리대책 추진

○ 새만금호 종합정화대책 수립.추진

- 오염원 증가 추세, 환경기초시설 확충현황 등 유역여건을 고려한 수질예측 모델링을 실시하여 환경기초시설 추가 확충, 비점오염원 처리 방안 등을 마련
- '98.1월까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수질예측모델링을 실시하고 농림부, 전북도 등과 협동으로 종합정화대책 수립